

**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
(2011년 4/4분기)**

2012. 2. 10.

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팀

목 차

요약	II
I. 개 요	1
II. 지역별 동향	2
III. 업종별 동향	6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8
V. 기 타	9

< 요약 >

□ 2011. 4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5.4% 감소한 64.0억 달러 시현

-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북미, 업종별로는 광업,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중심 투자

【 지역별 】

□ 아시아와 북미를 비롯 지역 전반적인 감소세로 특히, 유럽과 중남미는 큰 폭 감소세

- 아시아와 북미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각각 -32.7%, -9.3%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 -66.7%, 중남미 -46.9%, 북미 -9.3% 등 아프리카와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자 감소

※ 아시아(25.7억 달러), 북미(17.1억 달러), 유럽(9.9억 달러), 중남미(6.1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□ 광업과 제조업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이 감소세인 가운데 건설업과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은 투자 증가세

- 광업 투자는 에너지 공기업 투자(9.7억 달러)의 전년동기 대비 65.8% 감소가 감소세의 주요 요인
-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투자는 각각 35.7%, 48.5% 감소하여 비중이 각각 28.9%, 13.0%에 그침

※ 광업(20.0억 달러), 제조업(18.5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8.3억 달러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6.2억 달러)

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3.4% 감소하여 그 비중이 전년 동기 88.2%에서 80.9%로 축소

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□ 1억 달러 초과の大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금분기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38.8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(62.0%) 대비 대폭 감소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67.2%에서 금분기 71.9%로 증가

I. 개요

- 2011. 4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8.3% 감소한 64.0억 달러를, 신규법인수는 18.8% 감소한 600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비중이 큰 아시아 및 북미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9.3%, 32.7% 감소하였으며,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의 증가율이 각각 -35.7%, -47.2%로 대폭 감소세를 보였음.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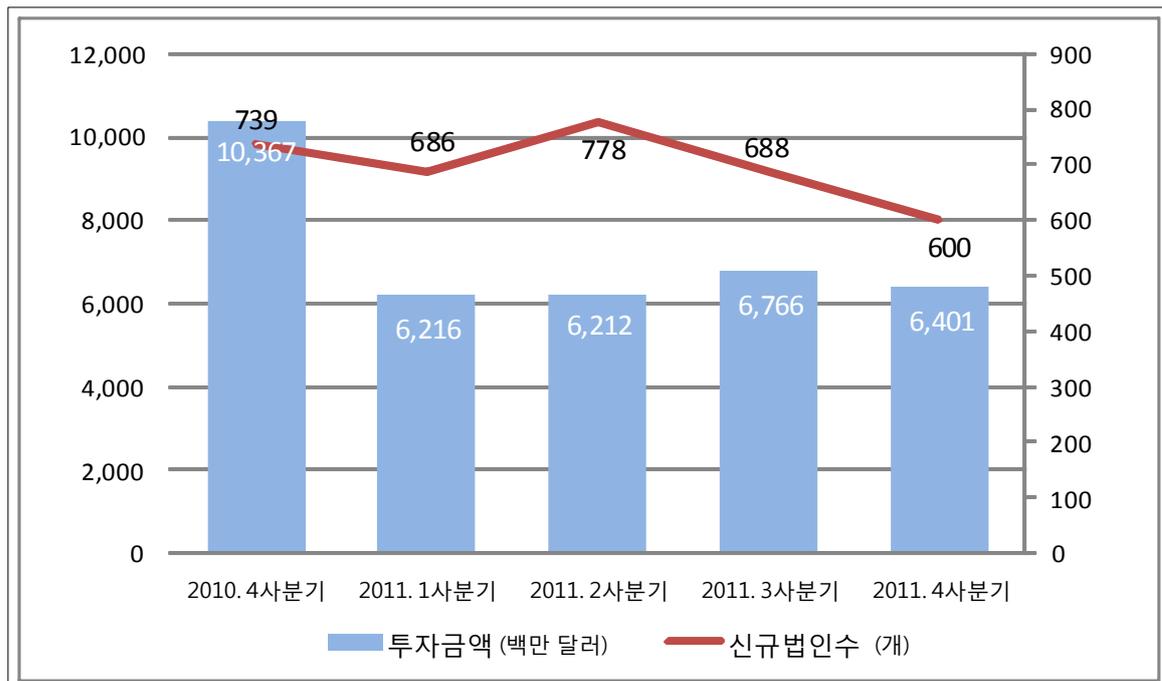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4/4		2011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 (증가율)	23,817 7.1%	4,029 -29.2%	20,327 -14.7%	2,478 -38.5%	24,245 19.3%	2,868 15.7%	10,367 7.8%	739 9.5%	6,401 -38.3%	600 -18.8%

*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투자비중은 지역별 아시아(40.1%), 북미(26.7%), 유럽(15.5%), 중남미(9.5%), 대양주(5.0%) 순이며, 업종별 광업(31.3%), 제조업(28.9%), 금융 및 보험업(13.0%) 순임.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(실행 기준)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0.1%, 북미 26.7%, 유럽 15.5% 순이며, 이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82.4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북미, 유럽 3개 지역이 각각 36.8%, 18.2%, 28.8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3.8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6.3억 달러), 싱가포르(5.1억 달러), 북미 내에서는 미국(14.9억 달러), 유럽은 벨기에(3.4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10.1억 달러)과 금융 및 보험업(4.7억 달러), 북미는 광업(10.2억 달러)과 금융 및 보험업(2.8억 달러), 유럽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3.8억 달러) 및 제조업(2.7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4/4		2011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1,692	2,750	6,678	1,579	9,924	1,916	3,820	489	2,570	419
(비중)	68.3%	49.1%	63.7%	32.9%	66.8%	40.9%	36.8%	66.2%	40.1%	69.8%
(증감율)	0.9%	-27.3%	-42.9%	-42.6%	48.6%	21.3%	50.1%	13.7%	-32.7%	-14.3%
북미	5255	808	5998	535	4,601	552	1,886	151	1,712	91
(비중)	20.1%	22.1%	21.6%	29.5%	19.2%	19.0%	18.2%	20.4%	26.7%	15.2%
(증감율)	40.2%	-38.6%	14.1%	-33.8%	-23.3%	3.2%	-43.3%	6.3%	-9.3%	-39.7%
유럽	3389	196	5327	131	6,117	153	2,981	37	992	38
(비중)	4.9%	14.2%	5.3%	26.2%	5.3%	25.2%	28.8%	5.0%	15.5%	6.3%
(증감율)	-23.8%	-22.8%	57.2%	-33.2%	14.8%	16.8%	-4.4%	2.8%	-66.7%	2.7%
중남미	2,102	92	1,041	89	2,138	94	1,139	21	605	20
(비중)	2.3%	8.8%	3.6%	5.1%	3.3%	8.8%	11.0%	2.8%	9.5%	3.3%
(증감율)	62.4%	-9.8%	-50.5%	-3.3%	105.3%	5.6%	442.5%	-27.6%	-46.9%	-4.8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25.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.7% 감소하였으며, 신규 법인수는 14.3% 감소한 419개를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6.3억 달러), 싱가포르(5.1억 달러), 인도네시아(3.8억 달러), 베트남(3.0억 달러), 홍콩(2.8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중국 투자비중이 24.7% 차지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08년 32.2%, '09년 32.5%, '10년 36.5%, '11. 2/4분기 42.7%, '11. 3/4분기 34.7%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10.1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4.7억 달러), 광업(2.3억 달러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0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제조업 투자비중이 39.1% 차지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36.0%, '09년 40.9%, '10년 53.8%, '11. 2/4분기 47.5%, '11. 3/4분기 72.1%
- 주요 투자 사업
 - C사의 싱가포르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3.4억 달러
 - E사의 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 : 1.4억 달러
 - G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0.5억 달러

나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9.3% 감소한 17.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신규법인수는 39.7% 감소한 91개를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14.9억 달러), 캐나다(2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광업(10.2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2.8억 달러), 제조업(1.6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4억 달러)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광업 투자비중이 59.7%, 금융 및 보험업은 16.2% 차지
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26.5%, '09년 50.3%, '10년 27.7%, '11. 2/4분기 27.3%, '11. 3/4분기 43.8%
- 북미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08년 1.6%, '09년 2.0%, '10년 34.8%, '11. 2/4분기 38.0%, '11. 3/4분기 32.4%
- 주요 투자 사업
 - B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4.5억 달러
 - D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2.8억 달러
 - H사의 캐나다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1.3억 달러

다. 유럽

- 유럽의 금분기 투자금액은 9.9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38개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-66.7%, 2.7%를 기록하여 투자금액이 대폭 감소

- 국가별로는 벨기에(3.4억 달러), 독일(2.1억 달러), 영국(2.0억 달러), 네덜란드(0.8억 달러), 노르웨이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3.8억 달러), 제조업(2.7억 달러), 광업(2.1억 달러), 건설업(0.3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비중은 38.7%, 제조업 비중은 26.7%에 달함.
 - 유럽지역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비중 : '08년 17.6%, '09년 18.9%, '10년 2.9%, '11년 2/4분기 2.8%, '11년 3/4분기 7.5%
 - 유럽지역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46.2%, '09년 17.0%, '10년 15.7%, '11년 2/4분기 31.4%, '11년 3/4분기 17.6%
- 주요 투자 사업
 - F사의 벨기에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: 3.3억 달러
 - I사의 독일 제조업 투자: 1.5억 달러
 - A사의 영국 광업 투자: 1.4억 달러

라. 중남미

- 금분기 투자금액은 6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0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-46.9%, -4.8%를 기록
- 국가별로는 브라질(4.2억 달러), 칠레(0.7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제조업(3.7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0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주요 투자 사업
 - J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1.5억 달러
 - K사의 칠레 광업 투자 : 0.7억 달러

마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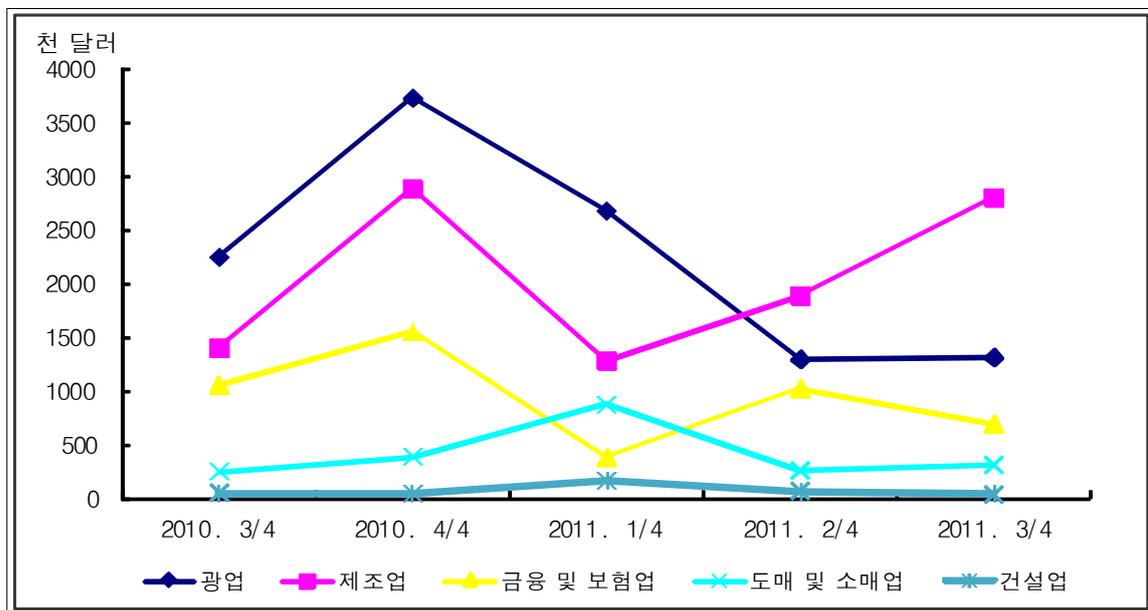
- 전년동기 대비 투자액 증가율은 대양주는 -12.4%, 중동은 6.4%, 아프리카는 25.5%로 대양주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를 보임.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오스트레일리아 광업 투자 : 1.9억 달러
 - L사의 마다가스카르 광업 투자 : 1.0억 달러
 - K사의 오스트레일리아 광업 투자 : 0.7억 달러
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업종별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금융 및 보험업 -48.5%, 광업 -47.2%, 제조업 -35.7%, 도매 및 소매업 -11.4% 등 주요업종이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, 운수업 62.0%, 건설업 40.6%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23.7% 등 증가

<그림 3>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광업 31.3%, 제조업 28.9%, 금융 및 보험업 13.0%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.8%, 도매 및 소매업 5.5% 순을 기록하여 광업이 가장 큰 투자비중을 차지
 - 광업의 경우 국가별로 미국(9.5억 달러), 오스트레일리아(2.7억 달러), 영국(1.6억 달러), 마다가스카르(1.0억 달러)의 순으로, 제조업은 중국(4.3억 달러), 브라질(3.5억 달러), 인도네시아(2.0억 달러), 베트남(1.8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 -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17.2%, '09년 26.8%, '10년 30.1%, '11년 2/4분기 21.0%, '11년 3/4분기 21.7%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29.7%, '09년 22.4%, '10년 29.4%, '11년 2/4분기 30.8%, '11년 3/4분기 42.8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4/4		2011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광업	4,092	109	5,440	67	7,295	53	3,792	17	2,002	14
(비중)	17.2%	2.7%	26.8%	2.7%	1.8%	30.1%	36.6%	2.3%	31.3%	2.3%
(증감율)	99.3%	53.5%	32.9%	-38.5%	34.1%	-20.9%	2.3%	-19.0%	-47.2%	-17.6%
제조업	7,081	1,396	4,549	847	7,116	1,118	2,877	293	1,851	229
(비중)	29.7%	34.6%	22.4%	34.2%	39.0%	29.4%	27.8%	39.6%	28.9%	38.2%
(증감율)	-13.1%	-37.9%	-35.8%	-39.3%	56.4%	32.0%	103.0%	19.6%	-35.7%	-21.8%
금융 및 보험업	2,159	82	2,001	48	3,261	63	1,616	17	832	12
(비중)	9.1%	2.0%	9.8%	1.9%	2.2%	13.5%	15.6%	2.3%	13.0%	2.0%
(증감율)	28.1%	6.5%	-7.3%	-41.5%	63.0%	31.3%	100.8%	54.5%	-48.5%	-29.4%
도매 및 소매업	3,744	790	1,795	0	1,201	662	397	192	352	125
(비중)	15.7%	19.6%	8.8%	21.3%	23.1%	5.0%	3.8%	26.0%	5.5%	20.8%
(증감율)	47.1%	-21.9%	-52.1%	-33.2%	-33.1%	25.4%	-30.0%	47.7%	-11.4%	-34.9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는 20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7.2% 감소하였고, 신규법인수는 14개로 17.6% 감소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(10.1억 달러)의 전년동기 대비 64.4%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국가별로는 미국(9.5억 달러), 오스트레일리아(2.7억 달러), 영국(1.6억 달러), 마다가스카르(1.0억 달러), 미얀마(0.8억 달러), 인도네시아(0.8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북미 및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51.1%, 14.5%로 상당부분 차지
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08년 34.0%, '09년 55.4%, '10년 17.4%, '11년 2/4분기 34.9%, '11년 3/4분기 57.4%
 -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08년 13.8%, '09년 4.7%, '10년 5.5%, '11년 2/4분기 23.3%, '11년 3/4분기 13.5%
- 신규법인수 비중(2.3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31.3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매우 큰 편임.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6.9억 달러) 투자비중이 84.5%, 광업지원 서비스업(1.7억 달러)이 8.6%를 차지함.

3. 제조업

- 금분기 제조업 투자는 18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.7% 감소, 신규법인수는 229개로 21.8% 감소
 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1.0억 달러)과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.4억) 투자의 전년동기 대비 각각 92.9%, 39.1%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국가별로는 중국(4.3억 달러), 브라질(3.5억 달러), 인도네시아(2.0억 달러), 베트남(1.8억 달러), 미국(1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10.1억 달러로 50.2% 비중 차지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지역 투자비중 : '08년 59.5%, '09년 60.1%, '10년 75.1%, '11년 2/4분기 77.9%, '11년 3/4분기 77.2%
- 투자금액 비중은 28.9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8.2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임.
- 세부업종별로는 1차 금속 제조업(5.5억 달러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.4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2.2억 달러), 섬유제품 제조업(1.7억 달러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1.0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4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8.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8.5% 감소하였으며, 신규법인 수는 12개로 전년동기 대비 29.4% 감소함.
 - M사의 금융업 투자(3.4억)의 전년동기 대비 67.0%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지역별로는 아시아(4.7억 달러), 북미(2.8억 달러), 중남미(0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5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.4% 감소하였으며, 신규법인 수는 125개로 전년동기 대비 34.9% 감소
- 국가별로는 미국(1.4억 달러), 중국(0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투자비중이 각각 40.6%, 16.2%임.
- 세부업종별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(1.4억 달러), 소매업(1.1억 달러) 순임.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3.4% 감소하여 그 비중이 80.9%로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은 22.3%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이 13.4%로 확대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08		2009		2010		2010. 4/4		2011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16,827	387	16,620	280	20,125	375	9,148	112	5,179	105
(비중)	9.6%	70.6%	11.3%	81.8%	13.1%	83.0%	88.2%	15.2%	80.9%	17.5%
(증가율)	12.1%	-5.1%	-1.2%	-27.6%	21.1%	33.9%	7.4%	36.6%	-43.4%	-6.3%
중소기업	5936	1,878	3342	1,186	3,687	1,355	1101	336	855	275
(비중)	46.6%	24.9%	47.9%	16.4%	47.2%	15.2%	10.6%	45.5%	13.4%	45.8%
(증가율)	3.3%	-17.7%	-43.7%	-36.8%	10.3%	14.2%	8.4%	4.7%	-22.3%	-18.2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80.9%인 반면, 신규법인수 비중은 17.5%에 그치고 있는 바, 대기기업의 투자건별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인 것으로 보임.

2. 대기기업

- 업종별로는 광업(18.1억 달러), 제조업(12.5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6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대기기업의 광업 투자비중은 34.9% 차지
 - 대기기업의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23.2%, '09년 31.6%, '10년 35.6%, '11년 2/4분기 23.5%, '11년 3/4분기 22.6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20.0억 달러), 북미(12.2억 달러), 유럽(8.9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5.7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66.1% 차지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36.8%, '09년 44.5%, '10년 51.1%, '11년 2/4분기 57.4%, '11년 3/4분기 43.0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5.1억 달러), 북미(1.9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4/4		2011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817	16,007	544	4,895	588	4,875	222	575	198	486
~200만달러 이하	1,362	1,274	941	890	1,052	972	405	93	316	66
~500만달러 이하	1,806	550	1,321	407	1,393	422	474	28	478	20
~1000만달러 이하	1,702	243	1,126	157	1,359	187	443	12	538	9
~5000만달러 이하	5,295	253	4,106	185	4,439	207	1,594	23	1,265	9
1억달러 이하	3,002	41	2,629	37	2,231	33	769	3	1,101	5
1억달러 초과	9,833	37	9,659	26	13,183	32	6,459	5	2,505	5

- 건당 투자규모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의 비중이 전년동기 85.1%에서 금분기 76.1%로 대폭 감소하고,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의 비중도 62.0%에서 38.8%로 대폭 감소하여 투자규모의 대형화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임.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67.2%에서 금분기 71.9%로 증가

<표 6>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4/4		2011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23,817	4,029	20,327	2,478	24,245	2,868	108	739	52	2
~ 50% 미만	737	20	430	21	306	17	1,369	6	806	90
50%	3,190	531	1,582	294	2,941	369	67	108	78	18
~ 100% 미만	357	145	657	84	192	103	1,856	23	861	56
100%	2,087	418	1,610	245	3,639	253	6,966	61	4,604	434